

---

#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NPO)가 답한다

50문  
50답



# Contents

---

<b>01</b> 비영리 전반	03
<b>02</b> 사업 및 임팩트(성과)	08
<b>03</b> 기부금 및 투명성	20
<b>04</b> 홍보	31
<b>05</b> 조직 및 운영	37

---

# I

---

## 비영리 전반





# 비영리 전반



## 01

### 비영리단체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전통적으로 사회는 정부와 기업으로 대표되는,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나뉘어 논의돼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각지대를 채울 수 없다는 시각이 등장하면서 대안으로서 시민사회라고도 불릴 수 있는 ‘제 3섹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NGO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로, 1945년 UN에서 처음으로 쓰였던 신생어입니다. 이후 NGO이라는 단어는 정부나 기업 외 새롭게 등장한 공익 주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요새는 NGO 대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라는 용어가 널리 쓰입니다. 오늘날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환경, 아동, 인권 등 인류의 가치나 선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02

### 우리나라 비영리단체의 현황이 궁금합니다.

국내에는 현재 1만3833개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2017년 9월 30일 기준). 우리나라는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613개, 각 시도에 등록된 단체는 1만2220곳입니다. 법인 형태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거나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모금액이 3억원 이상,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인 국세청에 결산공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한국NPO공동회의가 국세청에 결산공시를 올린 9166개 단체(2017년 9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모금

# I 비영리 전반



액 3억원, 자산 10억원 이상 단체는 총 2,891곳이며 이들의 총 자산은 216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익법인 2,891곳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장학재단 등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과 학교법인이 포함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및 기업 기부금은 5조5715억원, 목적사업비는 75조1534억원, 보조금은 36조8484억원, 국내 사업비는 55조9362원, 해외 사업비는 1조551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03

### 비영리단체는 어떤 절차를 거쳐 설립되며,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나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려면 가장 먼저 설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체가 앞으로 할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담당하는 부처가 다릅니다. 가령 문화 관련 사업을 할 경우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엔 복지부 산하에 등록하는 식입니다. 이와 같이 담당하는 주무관청에 단체를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라 어떤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신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법적 형태는 크게 재단법인,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나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격은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만으로도 활동이 가능하지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법인화’ 하는 이유는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기부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고 자산 소유 허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단체에서 하는 활동이나 자산이 존속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태어난 아이를 등록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듯, 법인을 등록하면서 법인 인격을 부여 받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

# I 비영리 전반



세법에 따라 수입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물건을 수입할 경우에 관세도 면제 받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발생한 수입이나 들여온 물품이 다시 공익 목적으로 쓰여 수익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서입니다. 또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경우, 법인에 기부하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액만큼의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공익법인에서 대신한다는 전제 하에, 기부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취지입니다.

## 04

###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는 방식이나 근거법에 따라 다릅니다. 사단법인은 회원이 모여서,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여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반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으로, 보통 기본 재산을 근거로 설립된 재단법인 형태를 뜻합니다.

재단법인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30억원 이상의 기본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은 100명 이상이어야하며, 재산 출연 요건은 사업목적별로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법인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관련 법이 추가 적용됩니다.

## 05

### 비영리법인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을 대신 수행하기도 하나요?

비영리단체들은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



# 비영리 전반



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어려움을 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06

###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과 비영리단체를 통해 후원하는 것 중,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후원금을 통한 경제적인 지원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인 문제들을 포함해 복합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의 개입을 통해 통합적인 접근과 다각적인 도움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도울 경우, 특정 대상자에게 후원금이 편중되거나, 후원금의 중복수혜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후원금 직접관리가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에 후원금 사용을 통제하기 힘들다보니, 대리인이 후원금을 유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체에서 지원하는 전문적인 사례관리의 부재로 필요한 서비스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비영리단체에서는 저소득 빈곤가정을 발굴하여 상담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찾아 지원하는 등 정서적 지지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후원자의 눈길을 끄는 사례 외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각지대의 저소득가정이 많습니다. 이슈가 되는 특정 사례 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고, 이들에게도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II

---

## 사업 및 임팩트(성과)







## 사업 및 임팩트(성과)



07

###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왜 해외를 도와야 하나요?

UN은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발표했습니다. 절대 빈곤퇴치, 양질의 교육환경, 식수와 위생 등 총 17가지 목표입니다. 현재 세계의 약 10억명이 최빈곤층이고, 그 중 절반이 아동입니다. 아동의 1/4은 발육부진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며, 600만명의 어린이가 5살이 되기 전 사망합니다. 이처럼 개발도상국 아동들은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한국 역시 전 세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성장한 나라입니다. 6.25전쟁 후 한국은 전 세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월드비전이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모두 한국전쟁 후 들어와, 얼굴도 모르는 한국의 어린이를 돕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43년간 여러 나라와 비영리 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한 우리나라에서 다시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된 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선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 복지 예산이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시리아 난민 아이들처럼 해외에는 국가 자체가 무너졌거나 능력이 안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도움이 가장 시급한 곳에 필요한 곳에 가능한 도움을 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 II

## 사업 및 임팩트(성과)



08

### 해외사업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비영리단체마다 활용하는 기준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의 도움이 가장 시급하고, 단체가 현지에 지원할 역량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각 단체가 활용하는 기준으로는 국가별 취약계층 아동 수, 빈곤지수(Human Poverty Index), 어린이 안녕지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5세 미만 아동 및 모성 사망률, 식수위생시설 접근성, 초등학교 등록 및 이수률, 가구평균 소득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현지 사무소 등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며, 이후 후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을 최종 결정합니다. 이후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 맥락, 이해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한 뒤 지역별 세부실행계획 및 중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단체별 구체적인 해외 사업 지역은 각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9

### 우리나라 비영리단체 중엔 종교적 성격을 띤 곳이 많아 보입니다. 사회복지 사업 명목으로 종교활동(선교, 포교 등)을 하는 건 아닌가요?

어떠한 종교든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자비와 박애정신에 기반하고 있기에, 종교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비영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기관의 경우 해외 선교사들이 세운 기관도 많다 보니 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건립 이념이나 철학이 종교적 배경에 있다는 것일 뿐 종교적 성격을 띤 기관들이 모두 선교를 목적으로 하거나 선교활동으로 후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영역과 대

## II

# 사업 및 임팩트(성과)



상자를 선정하며, 국가에 따라 다양한 종교지도자와 협력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가치에 기반해 설립됐지만 무슬림 주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전체 예산의 20%를 사용하는 비영리단체도 있습니다.

### 10

####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국내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이 단체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구 내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및 치료시설, 학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비영리단체로 지원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고, 수혜자 인터뷰를 통해 참여동기를 확인합니다. 또한 가정방문, 개별 인터뷰를 통해 수혜자 선정이 타당한지를 확인하며 정부나 여타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업 지원을 받고 있진 않은지 중복 수혜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전문가 그룹의 사례선정회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해외 사업의 경우 각 비영리기관별 현지 사무소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주민위원회를 만들어 취약한 가정을 함께 결정합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선정하되 한 가정에 중복 지원이 물리지 않도록 합니다. 결연 아동의 경우엔 아동의 정보가 후원자에게 갈 수 있다는 동의서를 아동 및 가정으로부터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 II

## 사업 및 임팩트(성과)



11

**대형 비영리단체에서 유난히 아동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아동은 무한한 성장가능성과 기회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주장하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이기도 합니다. 학대 받기 쉽고, 기본적인 권리 침해를 당하기 가장 쉬운 대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아동은 보호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아동에게 각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은 UN아동권리협약에 드러나 있고 우리나라도 1991년에 이 협약을 비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많은 비영리단체들은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을 돕는 필요에 대해 공감하면서,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단체들이 크게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형 단체들이 아동만을 돕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하거나 환경, 예술 등 다른 목적사업을 지원하는 곳도 많습니다.

12

**비영리단체간 경쟁이 과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목적으로 일하는 곳끼리 협력할 순 없나요?**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 변화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비영리단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 단체의 힘으로만 이루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력은 비영리단체 활동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보다는 목적사업에 대한 협력과 협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 비영리단체가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영역을 완벽히 포괄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 단체들은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맺고 있으며, 단체

## II

# 사업 및 임팩트(성과)



별 협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과의 협력도 늘리는 추세입니다.

가령, 해외에서 인근 지역에 여러 단체가 활동할 경우 건물을 공유하거나, 각 단체의 강점을 살려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국제기구나 해외 비영리 등과 협력하는 일도 많습니다. 또한 국제개발 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조혼 할례' 문제 등에 대해 국내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아동학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 유니세프와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여러 단체가 함께 서명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고, 공동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지역사회 내 작은 비영리기관들과 협력해 지원을 이어갑니다.

### 13

**결연 사업의 경우, 결연 아동과 비결연 아동과의 사이에서 격차가 생기거나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해외 현장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당 지역에서 어떤 가정이 가장 취약하고 어떤 기준으로 결연아동을 선정할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결연아동과 비결연 아동이 받는 혜택에 대해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시기를 받지 않도록 합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아동 후원금의 일부는 지역개발사업에 쓰입니다. 설사,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 예방사업이나, 마을의 학교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식수시설 지원과 위생교육, 기본적인 읽기 쓰기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

## II

# 사업 및 임팩트(성과)



로그랩 등 지역개발 사업에는 결연아동과 비결연아동 구분 없이 지역사회 모든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비결연 아동에게 후원자가 매칭되기 전까지는 비지정후원금으로 결연아동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결연후원을 통해 성장한 아동이 지역사회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한 예로, 캠페션을 통해 15년간 미국인 후원자의 후원을 받았던 필리핀의 미셸(1980년생)이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매춘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미셸은 8살 때 캠페션 어린이센터에 등록됐고, 15년간 후원자를 통해 물질적인 후원 외에도 정서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미셸은 후원자의 도움으로 1999년 필리핀 산토 토마스대학에 입학해 아트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졸업 후 6년간 필리핀 트럼펫츠 회사에서 뮤지컬 마케팅 디렉터로 일했습니다. 이후 그는 캠페션을 통해 받았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자 어린시절을 보낸 마닐라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신매매와 매춘,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을 위한 비영리단체(NPO) 'Made In Hope'을 설립했습니다. '윤락여성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윤락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은 여성'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미셸은 지역 매춘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존귀함 회복을 위한 전인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지역 윤락여성들이 스스로 사업을 구상하고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She Works' 프로그램을 개발해 여성들의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6명의 리더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조직해 또 다른 여성들에게 영



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성매매 현실을 알리기 위한 옹호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자세한 후원 아동 변화의 사례는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4

**후원이 끝난 뒤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사업이 끝난 뒤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후원이 끝난 대상자에 대해서는 후원자(기업, 개인 등)에게 결과보고 형태로 수혜자의 상황을 전달하거나, 소식을 통해 알리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세히 변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노출되었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따로 코너를 만들어 변화된 상황을 공유합니다.

기부 이후 변화를 알리고자 하는 국내외 비영리단체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비영리단체들은 기부자들로부터 단순히 회계 투명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임팩트, 즉 비영리단체 활동이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모금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보여주며 모금하기보다는 후원자가 기부를 하게 되면 개인 및 지역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기부를 요청합니다. 미국 유나이티드웨이(United Way WorldWide)는 후원자들이 낸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는지 2년에 걸쳐 임팩트 평가척도를 개발했습니다. 비영리단체들은 해당 척도를 활용해 자신들의 활동이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지 기부자와 지역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 비영리단체에서 빈곤·불평등·인식개선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를 바꾼 사례도 있나요?

비영리단체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외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법이나 정책,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옹호활동을 진행합니다. 한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기관들이 힘을 합쳐 캠페인 활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 예로 '외교부 인도적 지원 전략마련'을 들 수 있습니다. 인도적 위기가 커지고 심각해지는 세계적 환경 속에서 우리정부는 관련 전략이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시민사회가 인도적 지원 범위 확대, 취약그룹 보호 강화,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강화, 우호적 환경 조성, 해외 인도적 지원 시군의 역할 정립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된 정책 제언서를 전달하였으며 정부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전략을 2015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로 예산 증액 등 정부의 지속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하고 지킬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 및 제도개선 캠페인을 다양하게 펼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아동옹호활동을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권고한 아동 보호를 강조,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전면 폐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추진 외에도 아동의 주거권, 놀권리 등에 대한 지자체 조례가 제정 및 이행되도록 했습니다.



## II

# 사업 및 임팩트(성과)



16

**단체마다 사업이 비슷비슷해 보  
입니다. 어떤 곳이 사업을 잘 하  
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최근 기부를 하기 전에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많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후원자팀에 직접 전화해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검토하고 기부한 이후에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신뢰한다고 하네요. 이처럼 홈페이지, 정기간행물(소식지), 사업보고서나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비영리단체들의 소식과 활동 내용들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 단체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지,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신뢰할만한 단체인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후원자 개인이 중시하는 분야가 단체와 일치하는지, 이런 지향점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단체인지를 보고 본인의 지향점과 맞는 단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7

**내부에서 사업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나요?**

사업의 변화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건 변화를 만드는 일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각 단체는 사업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평가하고, 이후 사업 방향이나 계획에 이를 반영합니다. 단체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평가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들어내고자 하는 변화 목표를 설정하고, 2) 그에 따른 지표를 정의한 뒤, 3) 구체적인 측정 방법과 목표치를 설정하고 3) 측정 빈도 등을 설정해 변화를 평가합니다.

가령 세이브더칠드런의 경우 '아동권리상황분석(Child Rights Situational Analysis)'을 통해 아동권리 현황 및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원인, 대응



체계 등 종합 실태를 파악한 뒤 사업을 기획하고, 이후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2014년에는 농어촌지역 아동보호 이슈에 대한 아동권리상황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 파악한 농어촌지역 방과후 아동 방임 문제를 해결하고 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농어촌아동 지원 사업을 기획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책임을 가지고 직접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축을 지원하고, 아동 권리에 기반해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임아동을 보호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방과후 아동 보호율도 향상됐으며 지자체에서 아동보호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강원도 영월군은 사업 이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새로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신축하여 제공하는 등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18

### 해당 비영리단체가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효과성과 효율성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나요?

비영리단체는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수행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지표들을 함께 선정하고, 사업을 실행하면서 성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드비전의 경우 아동 삶의 질 지표(Child Wellbeing Outcome Indicator)를 통해 주기적으로 사업성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사업의 특성, 대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아울러 공통으로 볼 수 있는 지표를 찾기는 어려우나, 각 기관에서 중요하게 관리하는 지표들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효율성은 총 세입 가운데 마케팅비, 인건비, 기타 운영비를

# II

## 사업 및 임팩트(성과)



포함하는 행정비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행정비 비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휴먼서비스로, 다양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대상자의 변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 높은 효율성과 효과성만 따지기는 곤란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III

---

## 기부금 및 투명성





## 기부금 및 투명성



19

**갈수록 비영리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는 것 같은데, 각 기관에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비영리단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모금, 이사회 거버넌스, 후원자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표를 설정하고 점검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후원금 사용 내역은 단체의 홈페이지나 국세청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부 감사 및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그 밖에도 감사보고나 연차보고, 이사회 공시 등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살림과 운영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또한 후원자가 직접 사업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후원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우편이나 메일, 문자,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 해 살림 내역을 전달합니다.

20

**비영리단체는 어떤 관리 감독을 받나요?**

비영리단체는 기본적으로 등록된 '주무관청'의 감사를 받습니다. 가령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의 경우, 복지부에서 단체의 사업 및 재무현황 전반을 실시합니다. 또한 매년 2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결산보고를 해야 하며, 4월 말까지 국세청에 전년도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가 기업이나 정부 위탁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경우엔 사업마다 평가를 받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규를 준수하며, 그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 기부금 및 투명성



21

### 내가 낸 기부금의 100%가 지원대상자에게 돌아가나요?

비영리단체의 성격에 따라 모금 및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양합니다. 일률적으로 몇%가 적절하다고 말하긴 어려우나, 전체 후원금의 80%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암묵적인 규범이 존재합니다. 기부금 100%가 후원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기부자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체계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 변화를 만드는 일을 하는 비영리단체로서는 운영비와 관리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각 단체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단체별로 기부금액에서 운영비를 얼마만큼 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들간에 절대적인 수치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관에선 후원개발비로 처리하는 항목을 다른 기관에선 사업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규모 단체이거나 국내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단체의 경우 대형 단체나 모금을 분배하기만 하는 배분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비 비율이 더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비영리단체 간 회계기준을 통일해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나오고 분류가 정해지면 단체별 행정운영비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기부금 및 투명성



22

### 비영리단체 모금 및 운영비는 낮을수록 좋은건가요?

비영리단체마다 사업 유형이 다르고 특수성이 있어, 인건비 및 운영비를 단순 비교해 평가 하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사업을 주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상담하는 일을 하는 기관에선 인건비 비중이 큰데 반해, 해외 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이나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비영리단체에 근무하는 상근자에게 돌아가는 '인건비'를 운영비로 보고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인력을 줄인다든가 월급을 낮춘다면, 사업의 질을 높이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건비나 운영비가 낮은 것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및 운영비 비율만 비교해 단체를 파악하기 보단, 단체가 진행하는 사업 유형이나 내용과 함께 사업 성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23

### 개인 후원과 기업 기부, 정부 보조금 비중이 궁금합니다.

개인 후원금, 기업 기부금, 정부 보조금 비율은 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경우 전체 모금액의 90% 이상이 개인 후원이며, 정부 보조금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기업과 재단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이 5% 가량 됩니다.

정부 산하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동복지전문기관 등 정부 사업을 위탁해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정부 보조금 비중이 보다 높습니다. 위탁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보통 개인 후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단체에 따라 기업 후원비중이 가장 큰 곳도 있습니다. 가이드스타 홈페이지나



## 기부금 및 투명성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단체를 검색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4

#### 기업에서 기부한 물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단체에서 후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자원을 찾은 뒤 해당 기업에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에서 도서 등 특정 제품을 기부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엔 필요한 대상자나 적절한 기관을 선정해 배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업체에서 겨울철 소외계층을 위한 패딩을 기부하면 비영리단체는 의류가 필요한 이들을 찾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한 대상자를 직접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엔 기부된 물품으로 바자회 등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다시 활용하기도 합니다.

### 25

#### 기업 기부금을 받을 때 기준이 있나요?

기업에서 물품이나 돈을 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단체마다 기업 기부금에 대한 윤리강령이나 조항을 두고,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사업방향에 부합하는 성격의 후원금만을 받습니다. 담배, 무기, 도박, 포르노그래피 분야의 기업과는 협력하지 않으며 그 외에도 착취적 성격을 띤 대부업체나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기업, 비윤리적 경영활동을 하는 행위, 국제노동기구의 협정에 명시된 근로자 기본권을 위반하는 행위, 어린이 노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 성적/인종적 차별행위 등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의 기금이나 물품은 배제합니다.

실제로 A단체의 경우 내팔 대지진 발생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B기업의 기부금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거절한 바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에 따라





## 기부금 및 투명성



26

**서울 시내에서 비영리단체 이름이 붙은 여러 빌딩들을 봤습니다. 이런 건물도 후원금으로 사는 것인가요?**

서는 친선대사가 술담배 관련 광고를 했을 경우 배제하는 원칙을 둔 곳도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이름이 붙은 빌딩의 경우, 기관이 소유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한국 전쟁 후 외국 원조기관에서 시작한 월드비전의 경우, 수혜국이었을 당시 지원시설로 지어졌던 경우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경우에도 외국 원조기관인 CCF에서 자산을 기부했습니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아동을 위한 사업을 이어 가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밖에도 기부자가 건물을 기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잦은 이사나 높은 임대료 등을 고려했을 때, 임대보다 건물 매입이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했거나 매입을 고민하는 비영리단체도 있습니다. 임대료를 아끼는 만큼 더 많은 돈이 사업비에 쓰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7

**요새 온라인 포털에서 여러 기관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모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기준이 있나요?**

네이버 해피빈(happybean.naver.com), 다음 스토리펀딩(storyfunding.daum.net), 와디즈(www.wadiz.kr)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이슈에 맞춰 기부를 온라인으로 기부하는 ‘크라우드펀딩’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슈, 돕고 싶은 단체 및 이웃을 직접 선택하거나 상품 구매를 통해 해당 기관을 돕는 등 크라우드펀딩의 방식은 일반 기부와 차별점이 있지만 다른 기부금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비영리단체가 크라우드펀딩



## 기부금 및 투명성



을 통해 모금을 진행할 경우 기부금 사용처를 고지해야 하며, 모아진 기부금은 사전에 안내한 내용대로 사용됩니다.

28

### 길거리모금을 하는 분들은 전부 비영리단체 직원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기관들이 길거리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리모금은 꼭 모금을 위해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가 진행하는 활동을 안내하고, 필요한 인식 개선 활동을 위해 거리 모금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모금 철학이나 효율성, 인력 구조 등 기관의 상황에 따라 기관 직원이 직접 활동하기도 하고, 전문 대행업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대행업체를 통한 길거리 모금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해외에서는 보편화된 모금 방법입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하거나 규모가 작은 비영리단체가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9

### 내 후원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후원금의 사용과 집행 과정은 비영리단체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소식지나 홈페이지, 연간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는 후원금 집행 내역을 국세청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연도별 사업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 및 국세청(자산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의무)에 올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단체 블로그나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도 기부금 사용 내역이나 캠페인 후기 등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사업보고서나 소식지, 사업 기관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기부금 및 투명성



30

**새희망씨앗같은 사례 때문에 선뜻 기부하기가 꺼려집니다.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선 제도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새희망씨앗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허가 및 관리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대표 및 임직원이 128억원의 기부금을 유용하는 등 문제가 많았음에도 사단법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가 받아 활동해왔기 때문입니다. 새희망씨앗 같은 ‘가짜’ 기부금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허가 및 관리, 감독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모금 단체를 검증할 제도도 필요합니다. 호주나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모금 단체들이 정부에서 받은 승인번호를 사용하도록 해 번 호만 검색하면 믿을 만한 단체인지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31

**이영학 어금니아빠 사례처럼,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기부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도움을 받는 수혜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비영리기관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한다면 기부금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합니다.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치료기관으로 기부금을 집행하기도 하고, 현금이 아닌 현물, 서비스로 대체해 유용가능성을 예방합니다.

단, 기관을 통해 지원할 수 없거나 현물이나 서비스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적으로 유용했을 시 후원금을 환수한다’는 것을 고지하며 사전 동의서를 받습니다.

또한 집행한 기부금에 대해 적합한 증빙자료(영수증, 치료비 납부서)를 요



## 기부금 및 투명성



청해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후원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2

### 진짜 신뢰할만한 단체와 가짜 단체를 구분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단체가 후원자와 소통하는 창구인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등록이 되어있는지, 법인 형태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명시된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거나 기부금 단체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 여부도 중요합니다.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비영리담당자나 각 지자체 민관협력담당관에게 전화해 단체가 모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나온 호주나 영국 등의 사례처럼, 궁극적으로 정부에서 모금 단체를 검증할 제도를 갖춰 개인 기부자가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33

### 비영리단체 내부에서는 부정부패나 횡령을 견제할 제도를 갖추고 있나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내부감사제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의 감사를 선임해야 하며, 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감사는 업무와 재산상황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다면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 기부금 및 투명성



의무가 있어 부정부패와 횡령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윤리위원회를 두고 내부 직원들의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두거나, 익명 제보를 할 수 있는 제도, 직원들이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직원협업체’ 등을 갖춘 곳도 있습니다.

### 34

#### 비영리 단체 투명성이 의심될 때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나요?

설립허가를 내준 시도 및 주무부처는 공익법인을 감사하고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하는 단체의 투명성이 의심될 경우 그 단체가 등록된 주무관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은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특정 비영리단체를 주무관청에서 감사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 및 관리 감독을 하나의 창구로 통일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 비영리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후원자와 시민들의 관심과 독려가 필요합니다.

### 35

#### 비영리단체에서 전화로 후원을 요청하기도 하나요?

비영리단체에서 후원자에게 전화해 사업 성과를 보고하거나 감사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 비영리단체에 관심이 있어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 정보 이용 서비스 동의를 한 경우에도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동의가 없던 경우 타인의 개인



## 기부금 및 투명성



정보를 임의로 습득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모르는 곳에서 후원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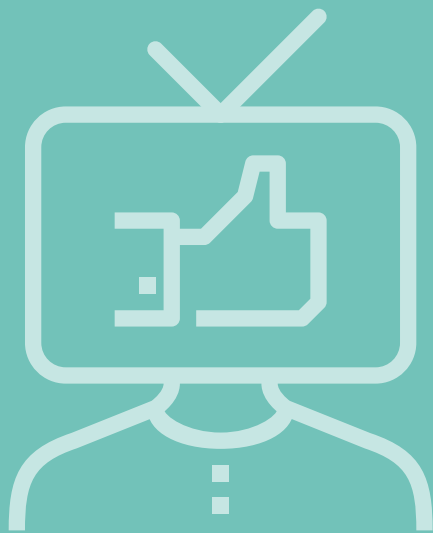
###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유출될 위험은 없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모든 단체는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고, 그 밑에 부서별로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후원관리정보시스템에 저장된 후원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암호화되며 권한 있는 사용자만 후원정보시스템에 접속 가능합니다. 또한 후원신청서 원본은 잠금 장치가 구비된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IV

---

## 홍보





37

**네이버 같은 포털이나 TV, 라디오에서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전체 모금액 중 몇 퍼센트가 연간 광고홍보비로 쓰이나요?**

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경우에는 유니세프 본부 차원에서 한국위원회에 지급한 마케팅비용에서 광고 홍보비를 지출하며, 이는 전체 모금액의 4% 정도입니다. 또한 TV나 포털, 라디오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기존 일반적인 영리기업과는 단가 자체가 다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라는 점을 감안해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나 활동을 알리기 위한 아동학대 공익캠페인 등은 모금 광고라기보다는 공익캠페인 광고로 봐야 합니다.

38

**비영리단체에서 네이버 같은 포털이나 TV, 라디오 광고가 필요하나요? 필요하다면 광고 비용 대비 효과가 있나요?**

비영리단체의 매체홍보는 일반 상품광고와는 다릅니다. 사회전반의 문제와 환경, 권리, 아동, 빈곤 등 비영리단체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캠페인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광고 활동과 같은 기준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필요한 분야를 알려,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체에선 거리 캠페인, 옹호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단체의 활동을 설명하지만, TV, 라디오, 포털 등은 가장 많은 이들에게 단체의 사업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매체입니다.

TV, 라디오 광고, 포털 광고 등을 통해 기부를 시작하고 단체의 활동에 동참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체는 주어진 마케팅 비용안에서 어떤 매체를 활용 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지를 전부 따져봅니다. 일정 정도의 비용을 들인다고 가정할 때,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적절한 후원금





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광고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광고를 보시고 1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는 기부자도 있었고, 난민 캠페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광고를 보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며 후원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39

**아프리카 빈곤을 보여주는 광고를 본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광고가 여전히 똑같습니다. 현장엔 얼마나 변화가 있나요?**

긴 호흡으로 보면 변화는 분명합니다. 1990년에는 전 세계적 극빈층은 19억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그 수치가 8억명으로 나와, 극빈층 절반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내 개발도상국이라 불리는 여러 나라에서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변화가 없거나 더디어 보이는 것입니다. 또 단체들이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작은 변화들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 지역개발을 하는 단체의 경우 '지역 내 극심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긴 호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월드비전의 경우 한 지역에서 15~20년간 사업 기간을 설정한 뒤, 이후 그 지역을 떠납니다. 10여년의 기간 동안 지역사회와 현지 정부, 비영리단체와 함께 일하며 현지에서 자립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월드비전은 스리랑카 세바나갈라 지역 썸머아일랜드 사업장에서 지역개발사업을 펼쳤고 15년이 지난 2012년, 사업을 마쳤습니다. 유치원 입학률



은 72%에서 98%로 증가하였고 식수사용가능 인구비율은 25%에서 88%로 증가했습니다. 가정 텃밭 가꾸기와 직업교육을 통해 월소득도 증가하여 월소득 3000루피 이상 가정 비율은 28%에서 70%로 증가하였고, 59개월 미만 영양 부족으로 인한 저체중 아동 비율은 51%에서 23.6%로 감소했습니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했던 베트남 호아방 사업장의 경우, 3~5세 아동의 유치원 입학 률은 2004년 60%에서 2016년 87%로 증가하였고,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정의 수는 1997년 59.5%에서 2016년 98%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빈곤 가정의 비율은 2005년 28.5%에서 2016년 11.3%로 감소하였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현지의 필요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지만 사업의 효과성을 내는데 보통 5~10년이 소요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 40

### 모금할 때 수혜자 사진을 활용하는 걸 봤습니다. 초상권 동의가 이뤄지고 있나요?

모든 홍보와 모금활동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매체종류와 노출범위 등 충분한 설명 후 초상권을 포함한 정보공개동의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양실조 걸린 아이가 있다면 초상권을 허락 받은 아이의 사진을 활용합니다. 이름 및 신상정보도 가명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후원대상자의 힘들고 아픈 사진을 활용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사진을 사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진 속 수혜자를 대상화한다는 '빈곤 포르노'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입니다. 후원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 아픈 사진을 보고 후원을 결심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곳이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단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41

**후원 광고에 등장한 아이와 관련된 사업에만 후원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에서는 초상권 동의를 받았거나 광고에 활용 가능한 아동의 사진, 영상만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광고 캠페인 하단에 '후원금은 유사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특정 아동의 병원비나 생활비 등을 위한 모금일 경우 그 아동을 돕는데 사용된다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단체의 자세한 사업내용은 각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2

**국내외 결연 아동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왜 일어나나요?**

결연아동 중에 같은 아동의 사진이 오거나 아동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의아해 하거나 후원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해외 결연에서 잘못된 정보가 오는 대부분의 경우는 아동정보수집, 자료입력이나 관리 등의 단계에서 현장에서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실수를 저지를 때 발생합니다. 현지의 열악한 교통과 통신, 전기시설 그리고 낮은 교육 수준 등이 현장 업무수행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NGO에서는 단순 실수로 후원자의 신뢰를 잃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원교육과 직원교육과 아동정보 검수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해외 결연 아동을 여러 명의 후원자와 결연하지 않



으며, 지원 금액이 해외보다 높은 국내결연의 경우 1명의 아동을 다수의 후원자와 결연하고, 이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고지합니다. 후원 중단으로 아동에게 지원이 끊기는 위험을 막기 위함입니다.

## 43

### 연예인 홍보대사는 홍보 비용을 받나요?

별도 홍보 및 위촉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캠페인 촬영이나 행사 참여시, 교통비 등을 감안한 소정의 실비를 제공합니다. 오히려 연예인 홍보대사가 해당 단체의 봉사활동과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에 알리는 역할을 하곤 합니다.

비영리단체에서 홍보대사의 역할은 상당합니다. 특정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거나 함께 봉사활동을 나간 뒤에는 팬들의 후원 문의가 쏟아지기도 하고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기도 합니다. 홍보대사가 아닌 경우에도 연예인이 특정 사업에 후원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목표로 했던 모금액에 며칠만에 채워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연예인 홍보대사의 영향력이 크다보니 단체 입장에서는 신중을 다해 연예인 홍보대사를 섭외하고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단체의 사업과 가치를 알립니다.

# V

---

## 조직 및 운영



# V

## 조직 및 운영



44

###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후원자는 물론 지역 본부, 해외 지부 등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능력,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능력, 사회문제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면 시리아 난민 현장에 직접 가거나 이들을 돕기 위해 모금을 하는 등 국제사회 이슈를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데, 지구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공감능력도 필요합니다.

45

###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의 연봉 수준은 어떠한가요? 복지 등 처우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자원봉사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야말로 사회문제를 발굴 및 진단하고 지역, 학교, 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 그룹이라 볼 수 있습니다. UN기구를 비롯, 해외 비영리단체들은 직원들을 전문가로 대우하고 대기업 연봉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사뭇 다릅니다. 단체별 규모와 특성에 따라 연봉 수준이 매우 다릅니다. 대형 비영리단체를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 신입 연봉(약 2400~2600만원)과 비슷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직원 규모가 10명 이하의 소규모 단체, 풀뿌리단체들의 경우 월 100만원 이하 활동비를 받고 일하기도 합니다.

46

### 비영리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NPO의 조직구조는 이사(이사회), 회원(총회), 임원,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공익법인의 이사회는 기관의 사업을 들여다보고, 외부의

# V

## 조직 및 운영



자원을 끌어오며,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의사 결정기구입니다. 기관의 미션에 부합하는 전문가들로 이사회가 잘 구성되는 것이 비영리단체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사진의 숫자나 운영 방식은 비영리단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해비타트의 이사들은 건축위원회, 모금위원회, 여성위원회 등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은 이사회뿐 아니라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별도 총회를 두고 있습니다. 밀알복지재단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및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임하고 있고,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선임해야합니다. 한국컴패션은 이사회때 논의된 모든 내용과 이사회 전후 달라진 사항을 표로 정리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조한 비영리단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47

**사랑의열매에서 매년 온도탑을 하던데, 사랑의 열매는 어떤 기관인가요? 다른 비영리단체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는 1999년 7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특별법)에 의해 중앙회와 16개 지회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민간기관으로, 법정기부금을 모금 및 배분하고 있습니다. 직접 복지서비스를 하지 않고, 기업이나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모금한 돈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로 배분하는 일을 합니다.

공동모금회에 기부할 경우 소득세법 적용을 받아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됨



니다. 이에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0% 범위에서, 개인 기부자는 (근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100%를 공제합니다. 그 외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경우에는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에서, 개인 기부자는 15~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48

**비영리단체에서도 대기업처럼 ‘부익부 빈익빈’이 큰 것 같아요. 후원자로서 같은 금액을 후원할 때 작은 단체를 도와야 할지, 믿을 수 있는 큰 단체를 후원할지 고민이 됩니다.**

규모가 큰 대형 단체일수록 내부 체계와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단체의 규모가 후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커야만 더 투명하고 믿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기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를 후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를 위해선 평소 국내외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이와 관련해 어떤 비영리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켜보면서 기부를 이어가게 좋겠죠.

## 49

**기부금 후원 외에 비영리단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비영리단체가 운영되는 현장 곳곳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아동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주기 위해 영어 편지 번역을 하는 봉사자부터,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 봉사 및 멘토링을 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음악적 재능을 살려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을 찾아가 멋진 연주회를 열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언제든지 동참해주세요. 캠페인이나 옹호활동을 지지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비영리단체들은 아동 학대 예방, 아동 인권 보호 등 사회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거나 시민 참여를 통한 수많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됩니다.

## 50

### 비영리 분야 전반에 대해 더 알고 싶을 때 참고할 만한 곳이 있나요?

한국 비영리 분야 전반에 대해 정보를 알 수 있는 기관은 한국NPO공동회의, 서울시NPO지원센터, 한국가이드스타 등이 있습니다. 한국NPO공동회의([www.npokorea.kr](http://www.npokorea.kr))는 한국비영리민간단체(NPO)들의 협의체로서 모금활동의 도덕성과 투명성 확보 등 비영리분야를 연구하고 NPO간 소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부문화선진화포럼, 국내외 NPO사례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www.seoulnpocenter.kr](http://www.seoulnpocenter.kr))는 서울시 산하 비영리 단체와 시민, 활동가를 연결하는 중간 지원기관으로, 시민 공익활동 및 NPO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활동 기회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공익법인에 대한 국세청 결산공시자료를 가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가이드스타 ([www.guidestar.or.kr](http://www.guidestar.or.kr))에서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비영리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가이드스타 (<http://www.guidestar.org/Home.aspx>), 비영리 평가기관인 채리티 네비게이터 (<https://www.charitynavigator.org/>), 미국 비영리 인증기관인 BBB Wise Giving Alliance (<http://www.give.org/>)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밀알복지재단,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컴패션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관명 가나다순)